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KBS	온라인	강원도의회, 내일부터 임시회...조례안 40여 개 심의	1
江原日報	03면	강원자치도의회 올해 첫 회기 시작	2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14~23일 임시회... 강특법 조례 등 심의	2
江原日報	22면	도민의 눈과 발... 특별자치도 안착·강원2024 성공 이끌어	3
강원도민일보	07면	특자도 시대 '소통·현장형 의정' 대의기관 역할 충실	4
江原日報	02면	靑 겨울스포츠 중심 '강원' 5년간 동계체전 단독 개최	5
강원도민일보	21면	동계스포츠메카 강원, 2028년까지 동계체전 단독 개최	5
강원도민일보	23면	박종호 양봉협회 강원도지회장 취임 "힘 모아 업계 위기 극...	6
江原日報	21면	"위기, 기회로 바꿔 전국 최고 지회 만들겠다"	6
강원도민일보	05면	"아프면 서울로..." 도내 여성질환 의료 인프라 열악	7
강원종합복지신문	온라인	소양강댐노인복지관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8
江原日報	21면	[동정]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철원)	9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엄기호(철원) 도의원	9
江原日報	01면	[광고]	9
강원도민일보	01면	[광고]	10
강원도민일보	07면	[광고]	10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도 학생 수 역대 최저 ... 해답이 없어서 문제	11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 고향기부금 52억원 모금 전국 5위	12
강원도민일보	09면	도교육청, 춘천고 앞 오피스텔 신축 불승인	12
江原日報	10면	춘천고 앞 고층 오피스텔 건립 불승인	13
江原日報	04면	양미리 너마저... 동해서 자취 감춰	13
江原日報	01면	강원 초·중학교 24곳 올해 신입생 '0명'	14
江原日報	02면	강원 초·중학교 24곳 올해 신입생 '0명'	14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 농업계 숙원 '미곡처리장 통합' 본격화	15
강원도민일보	15면	정선 화암면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신축 속도	15
江原日報	05면	1·2심 엇갈린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대법원 간다	15
강원도민일보	13면	삼척시립도계노인요양원 하반기 개원 '속도'	16

江原日報	14면	태백요양병원 내일 문연다	16
江原日報	15면	영월 어르신 '보건소·치매·돌봄' 원스톱 서비스	17
江原日報	21면	강원대 삼척·도계캠퍼스 활성화 방안 논의	17
江原日報	16면	'양구서 살아가기' 사흘 만에 마감	18
강원도민일보	17면	양양 인구 감소세 지속...새해들어 29명 줄어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대 지역인재 확대 구체화 과제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자치단체 '공모사업' 경쟁, 치밀한 전략이 중요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또 오르는 유가, 물가 상승률 2%대 유지 가능하나	21

2024 02 13 ()



강원도의회, 내일부터 임시회...조례안 40여 개 심의



강원도의회, 내일부터 임시회...조례안 40여 개 심의

주요뉴스 여야 공천 작업 속도...기호 3번은 '불확실'

[KBS 강릉]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내일(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려, 조례안 40여 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조례안은 강원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 계획 심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민 소통 활성화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지원 조례안 등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도 보고받습니다.

江原日報

2024 02 14 ()

03

강원자치도의회 올해 첫 회기 시작 오늘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 업무 보고·안전 처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임시회 1

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새해 첫 회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권혁열 도의장의 신년 개회사와 도지사·도교육감 신년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임시회를 이어간다.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도정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안전 처리, 도의원 징계와 관련된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위기임산부 지원 조례,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소방활동 방해차

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동의안 등 47건이 상정된다.

앞서 도의회 의정비심의회위원회가 의정활동비 인상 폭을 50만원 내로 정한 만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에 나선다.

특히 올 6월 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상정됐다. 농림수산위원회

는 강원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조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조례,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심사한다.

이 밖에도 22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접경지역개발촉진 지원 특위 등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1차 본회의에서는 최종 수·한창수·문관현·박호균·김시성·엄기호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예정이다. 이현정기자 together@

강원도민일보

2024 02 13 ()

02

도의회 14~23일 임시회...강특별 조례 등 심의

내일 도지사·교육감 신년연설

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등 예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 개최하는 가운데 도지사 권한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내용 등 '강원특별법' 관련 조례가 본격적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 간 제325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일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신년연설을 시작으로 의정활동비 200만원 인상 범위 내 지급 결정 조례, 위기임산부 지원 조례, 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등이 상정된다.

특히,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강원도 조례 심의가 예고됐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조례',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상정된다. 또, '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 조례',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조례' 등이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의원 징계 관련 윤리특별위(21일), 특별자치도 지원 특위(22일), 접경지역개발촉진 지원 특위(22일) 등이 예정돼 있다.

이설화·김덕형

2024 02 14 ()

22

江原日報

2022년 7월 개원한 제1대강 / 제1대 강원도의회 1년의 발자취 / 는, 신뢰받는'이라는 의정 구호
인도의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 아래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해
20개월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노력하고 있다. 올해 첫 회기를 앞둔 도의회의 지난 1년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 의회는 '소통하는, 실천하 간 발자취를 살펴봤다.

도민의 눈과 발... 특별자치도 안착·강원2024 성공 이끌어

■의회발 조례 160건 발의·입법 활동 활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 51일, 임시회 7회 79일 등 총 9회 130일 동안 회기를 운영했다.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처리한 안건만 376건이다. 이중 의회 발의 조례안은 160건으로 전년(88건) 대비 81.8% 늘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는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달빛진 의식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회 운영하고는 등 효율적인 의정 활동에도 집중했다.



료 복지연구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고신한다. 치수연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는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 및 문화재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 개발에 목표를 내고 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역 연구회는 댐 주변지역 피해 현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 다문화연구회는 다문화로 인한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 발굴을 노력 중이다. 도의회 오빠들도 설치 특위, 점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위, 패럴림픽개발지원 특위, 재정효율화 특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 특위 등도 헌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이착 위해 앞장= 강원도는 지난해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

조례안 160건 발의·376건 안건 처리
현안 해결 대정부 건의·성명서 발표
산림엑스포·강원2024 성공 개최 지원



8개 의원 연구회 지역 개발 활동 활발
각종 특위 주요시책 처리 위해 목소리
타 특별자치시도의회 상생협력 구축

■'시민의 눈'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강원자치도·도교육청 주요 사업에 대해 1,418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제324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29건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심영근)는 조지 운영 효율화, 의정 활동 역량 강화 등을 고심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김갑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정재홍)는 의료원 채무 상환·운영 개선, 관광산업 발전 방안 등을 따져 붙였다. 농림수산업위원회(위원장·김용복)는 농자재 반값 사업 보완, 수산물 방사능감사 신뢰성 제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춘)는 '일대일' 앱 사업자 선정 의혹, 반도체 육성 방안 등을 살폈다.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는 재난 상황 선제적 대응, 주요 SOC사업 추진,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는 전자질판 사업 투명화, 농어촌 유학 활성화에 집중했다.



법 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도의원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면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5월 내 국회 통과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에도 도의원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분과별 워킹그룹에 참여해 입법 과제 선결과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대응 논의 발굴에 앞장섰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 반영과 발굴을 주문, 성공 촉진을 지원했다. 또 제 주, 세종, 전북과 함께 4개 특별자치도의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사진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촬영한 도의회를 다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난해 5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위한 도의원의 국회 앞 파켓시위,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식 및 개원 기념식에서 표지석 제막, 지난해 11월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지난해 5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결의대회.

을 통해 도민의 주요 관심 사안 등을 발표, 대안을 제시했다.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15차례 대정부 건의·성명서를 발표하고 촉구했다.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충실=각 상임위원회는 도정 주요 사업장 현지 시찰 등을 통해 문제점과 대책 점검에 나섰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를 확인하는가 하면 사업 현장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6개 상임위원회가 36차례 76개소를 방문·확인했다. 도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 신속히 해결하는 등 의정 활동의 중심을 민생현안

에 통해 도민의 주요 관심 사안 등을 발표, 대안을 제시했다.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15차례 대정부 건의·성명서를 발표하고 촉구했다.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충실=각 상임위원회는 도정 주요 사업장 현지 시찰 등을 통해 문제점과 대책 점검에 나섰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를 확인하는가 하면 사업 현장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6개 상임위원회가 36차례 76개소를 방문·확인했다. 도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 신속히 해결하는 등 의정 활동의 중심을 민생현안

해결에 놓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수시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 중심 의정 실현을 위해 추석과 설 명절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어 소비 촉진 캠페인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으며, 연말에는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시해 연탄 배달을 간했다. 2023 강원세계유산엑스포 성공 개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

공 개최를 위해서도 역량을 동원했다.
■연구 및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의정 발전, 주요 시책, 지역 개발 등을 위한 연구회 활동도 활발했다. 현재 제11대 도의회 의원 연구회는 8개가 움직이고 있다.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는 환경오염 문제를 연구하며 주민의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연구회는 고령친화정책 연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강원미래정책연구회는 미래 다변화 시대에 대응해 강원자치도 정책과 자치법규를 연구하며, 강원형 통합 보건

권력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도의회는 각종 규제가 묶여 소외되고 낙후돼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산림, 환경, 군사, 농림의 4대 규제의 혁파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2차에 미반영된 의회 조지권, 예산안, 1인 보좌관제, 사무처 3급 신설 등 의회지권 특례안, 강원 교육 특례안, 동해안권 특례안 등 18개 시·군 실정에 맞는 특례들을 3차 특례안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4년에도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민생 속으로 들어가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기자
공동기획: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2024 02 14 ()
07

특자도 시대 '소통·현장형 의정' 대의기관 역할 충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시대 강원도민과 깊이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이라는 새로운 의정 슬로건을 정했다. 지난 한 해 도의회의 입법, 도정 견제, 현장 의정 활동을 살펴봤다. 강원도의회는 2월 현재 총 48명(국민의힘 42명·더불어민주당 6명, 1명 직위 상실)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작년 의원 1명당 평균 3.2건 조례 발의
사회적 약자 보호·산업 육성 등 뒷받침
각종 현안 대응 특위·연구회 활동 활발
특별자치도 성공 안착 위한 전방위 지원

■ 경제선지능 학생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난해 강원도의원 49명은 지난해 총 158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의원 한명당 평균 3.2건이다. 도의회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지원 조례 입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원미희), 경제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정재용),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영), 폭염피해예방 조례(이지영),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전찬성) 등이다. 또, 지난 2022년 말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등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김용래)를 지난해 말 가결했다.

산업 육성 조례도 눈에 띈다. 강원도가 민간투자를 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게 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진중호),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조례(지광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최홍수) 등이다. 또, 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조례(최규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박대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엄윤순),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김용복)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도 조례로 뒷받침했다.

지난해 말엔 조례 발의 건수가 많은 김용래·임미선·이지영·심오섭·최규만·염기호·양숙희 의원 등 7명에 우수의원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다짐했다.

■ 드론택시·강원형 배달앱 등 현안 조준

강원도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원들은 지난해 5분자유발언(46명 93회), 도정질의(9일간 35명), 행정사무감사(자료 1418건 요구), 서면질문(도정 698건·교육행정 267건)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 절차의 적절성 등을 집요하게 따져물었다. 중도개발공사(GJC) 보충제무,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업위원회 현지시찰



경제산업위원회



안전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혈세' 논란, 강릉 육계지구 연안·항만방재센터 건립, 강원형 배달앱 '일단시켜' 짬짜미 의혹, 도교육청 전자질판 특혜 의혹 등 현안이 도의회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 질의는 도의회 차원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에 대한 강원도감사 촉구,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등으로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현안 점검에 특히 공을 쏟았다. '오색사도 설치 특위'(8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13명), '절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위'(7명), '폐광지역개발지원 특위'(10명), '재정효율화 특위'(11명),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위'(13명)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강원미래정책연구회, 강원형 통합보건의료복지 연구회, 치수연구회, 강원문화유산 콘텐츠발굴연구회, 소양강담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다문화연구회 등 8개의 의원 연구회가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에 만전

도의회는 지난 2022년 6월 출범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도 조례 입법, 타시·도 사례 접목, 18개 시·군 의견 청취 등 다방면의 활동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 발표, 국회 피켓 시위에 나서고, 지난해 8월에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특별자치도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세종·전북특별자치시·도의회와 제주에서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의회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특별자치시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협력 등에 약속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는 지난해 6월 춘천에서 체육행사를 여는 등 친목행사도 도모하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6월 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농촌활력촉진지구·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조례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 '현장 중심' 국내외 의정활동 펼쳐

도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다짐 아래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 국외연수를 추진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상임위원회는 기관 방문 37곳, 현장 확인 39곳 등 76곳에 방문했다. 현장 점검은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 질의로 이어졌다.

국외활동도 전개했다. 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가 지난 7월 일본 도야마현에 방문해 의장과 지사를 예방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본, 유럽,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국외연수를 나서 해외 사례의 강원도 적용 사례를 연구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올해에도 많은 도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도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전했다. 이철확

2024 02 14 ()

江原日報

02

亞 겨울스포츠 중심 '강원' 5년간 동계체전 단독 개최

道·도의회·대한체육회·도체육회·도교육청 내일 협약식

22일 개막 올해 대회부터 2028년까지 도내서 전 경기 진행
김 지사 "공모 중인 국제 빙속경기장도 강원도 건립 마땅"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5년간 전국동계체전을 독점·단독 개최한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2번의 올림픽 개최, 향후 5년간 동계체전 단독 개최를 통해 강원도가 우리나라 겨울스포츠 중심임을 입증했다며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국제 스피드 스케이팅장(본보 지난 5일자 1면, 13일자 2면 보도) 역시 반드시 강원도

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자치도와 도의회,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도교육청은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 단독 개최 업무협약식'을 연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클라이밍,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등 8개 동계 종목 중앙단체 회장 또는 사무처장이 모

두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동계체전은 강원지역에서 열리게 된다. 2022년과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분산 개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 5년간 모든 종목이 강원도에서 치러진다. 올해 대회는 오는 22일 평창 용평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25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주 무대였으나 사후 활용 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강릉 오벌(스피드 스케이팅경기장) 역시 자연스럽게 동계체전 주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스

피드 스케이팅 월드컵과 청소년올림픽 일정도 겹쳐 동계체전 빙상 경기 1월에 미리 열렸으나 내년부터는 강릉 오벌을 활용한다는 것이 강원 자치도의 설명이다.

태릉 국제 스케이팅장을 대체할 빙상장 건립을 위한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동계체전 독점 유치로 강원 자치도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노린다는 전략이다.

국제 빙상장 건립 공모에는 춘천시, 원주시, 철원군을 비롯해 인천, 경기 4개 지자체가 뛰어들면서 강원 도와 수도권 간 대결구도가 성립됐다.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강원자치

도는 2018년, 2024년 올림픽 개최에 이어 5년간 동계체전까지 단독 유치해 '동계스포츠는 강원'이라는 명분을 확고히 세웠다. 강릉 오벌 역시 경기시설로 활용하는 실리를 잡을 수 있다.

김진태 지사는 "역사적인 정통성 측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강원지역이 앞서 있다"면서 "올림픽을 치른 강릉 스케이팅 경기장(오벌)과 함께 새로 짓는 국제 스케이팅장은 (국가대표)훈련장과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정부가 잘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4 02 14 ()

강원도민일보

21

동계스포츠메카 강원, 2028년까지 동계체전 단독 개최

내일 개최 방안·예산 지원 협약
국제빙상장 도내 건립 이점 기대
김 지사 "유치 경쟁 강원 앞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까지 성공 개최한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동계스포츠메카로 발돋움하는데 시동을 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028년까지 전국 동계체육대회를 단독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태릉 국제 스케이팅장의 대체 건립부지 공모'에도 도전, 올림픽 개최 경험 등을 들며 대체 건립부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동계체전 협약 체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5일 대한체육회장의 강원도의회 방문 시 앞으로 5년 동안 열리는 동계체전은 강원도에서만 개최하기로 도와 도 교육청, 대한체육회, 강원도 체육회 등과 업무 협약할 예정"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동계체전의 명실상부한 메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업무협약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전국동계체육대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방안과 대한체육회 예산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올해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단독 유치

에 성공, 대한체육회로부터 약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대회 준비에 나서고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역대 처음으로 전국동계체전에 대한 시·도별 유치신청 공모를 시행, 도체육회는 전남 TF팀을 꾸려 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단독 유치가 성공했다.

전국동계체육대회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점으로 최근 10년간 강원도에서 개최됐다. 올해 전국동계체육 대회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평창 등도내에서 개최된다.

■협약 기반 빙상장 유치 이점 기대 도와 시·군, 강원체육관계자들은 이번

동계체전 단독 개최를 바탕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제빙상장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릉 국제 스케이팅장 대체 시설 건립 공모에는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 철원군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도 지자체 등 전국 7곳이 뛰어들었다.

이날 김진태 지사는 태릉 국제 스케이팅장 대체시설 건립 공모에 대해 "강원도가 앞서있다. (스케이팅장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철거 예정인 태릉 스케이팅경기장의 대체 시설을 짓기로 하면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사후 활용이 더욱 어려워지자 신규 경기장이라도 강원도에 들어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선수 훈련 시설로 활용된 태릉 국제 스케이팅경기장은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오는 2027년 철거가 예정됐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태릉 국제 스케이팅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를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도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경험 등을 들며 대체 건립부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청소년올림픽을 잘 마쳤고, 동계체전도 5년 동안 강원도에서만 한다. 역사적인 전통도 가지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강원도가 강점을 (살려)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효석·김택형

2024 02 14 ()

강원도민일보

23



대한양봉협회 강원도지회장 취임식이 13일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려 박종호 회장이 취임했다.

박종호 양봉협회 강원도지회장 취임 “힘 모아 업계 위기 극복”

대한양봉협회박종호강원도지회장 취임식이13일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에 서개최됐다. 이날취임식에는강정호강원특별자치도의원, 김도진도 축산과장, 안재완도 동물방역과장을 비롯해 양봉협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임기는 4년. 박 회

장은 “위기에 처해있는 양봉업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의성고, 관동대 음악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강원도축산후계자연합회장과 양봉협회 속초시지부장을 역임했다. 김정호

江原日報

2024 02 14 ()

21

“위기, 기회로 바꿔 전국 최고 지회 만들겠다”

한국양봉협회 강원지회 박종호 지회장 취임식

한국양봉협회 강원지회는 13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제11대 강원지회장 취임식 및 지부장, 대의원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박종호 강원도지회장과 18개 시·군 회장단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박 지회장은 “현재 양봉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강원도지회를 만들겠다”고 다짐



◇한국양봉협회 강원지회는 13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제 11대 강원지회장 취임식 및 지부장, 대의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했다. 이어 “작은 것부터 바뀌서 변화를 꾀하고,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만드는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윤화현 한국양봉협회장, 김창천 강원

특별자치도 농정특보, 김도진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장,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 강정호(속초) 도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서화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2 14 ()

05

“아프면 서울로...” 도내 여성질환 의료 인프라 열악

진단·치료 어려움에 원정나서
여성암 발생률 증가세 불구
군 단위 5곳 의료기관 전무

춘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자궁근종(자궁 내부에 생기는 종양)으로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다.

지역의 한 병원에서 통증을 호소했더니 “자궁근종이 있으면 원래 아프다”는 시큰둥한 답이 돌아왔다. 통증이 지속되자 서울의 한 여성전문병원을 추천받았고 해당 병원에서 “왜 이제 왔느냐. 혹은 이 커져서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A씨는 “지역 병원에서 CT 사진 한 장 보여주지 않았는데 서울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이제는 아프면 무조건 서울에 가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비슷한 질환을 겪은 30대 여성 B(춘천)씨도 “도내에는 수술 가능한 의료기관 자체가 1개뿐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수술했다”고 했다.

강원지역 여성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지역 의료 인프라는 부족해 여성들이 여성질환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여성가족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여성·가족·복지통계와 국립암센터의 암등록통계를 13일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 여성들의 여성암 연령표준화 발생률(10만명 당)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자궁체부암은 2018년 7.9명에서 2020년 14.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자궁경부암은 같은 기간 8.1명에서 11.2명, 난소암도 8.4명에서 12.1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여성질환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보면 횡성·평창·화천·고성·양양 등 5곳에는 여성질환 전문 의료기관이 전무하다. C군의 한 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는 이제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D군의 또다른 병원도 “산부인과는 의사 없이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내 의료기관·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하락세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 여성의 도내 의료기관·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3.9점에서 2022년 3.5점으로 하락했다. 불만족 이유로 여성의 22.7%가 ‘치료효과·진료결과 불만족’을 꼽았다. 이어 불친절(14.6%), 진료·입원 대기 시간(14.5%), 시설 열악(12.9%), 이동 거리(11.7%), 전문 의료 인력 부족(9.1%)이 그 뒤를 이었다.

도의회는 임신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임미선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향후 결혼·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 의료 인프라 전반에 대한 지원을 넓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영 juvo9642@kado.net

2024 02 13 ()

강원종합복지신문

소양강댐노인복지관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진행

서영석 기자



[강원종합복지신문 서영석 기자]

소양강댐노인복지관(허미숙관장)은 최근 서면 강원창작개발센터 오디오리움에서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발대식을 진행했다.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주상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숙희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박찬흥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채웠으며, 춘천, 양구, 화천 갑 허영 국회의원, 춘천, 양구, 화천 을 한기호 국회의원의 축전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해왔다.

소양강댐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소양호가꿈이사업단 외 3개의 공익형 사업 참여자 313명 과 신북읍, 북산, 사북 등 소양호 마을을 책임질 사회서비스형 이웃돌봄사업 단 100명 총413명의 참여자가 2024년을 가득 채워나갈 계획이다.

서영석 기자 gwelfare01@gmail.com

江原日報

2024 02 14 ()

21

◇엄기호강원특별자치도의원(철원)은 14일 오전 11시 철원한탄리버스광호텔에서 열리는 강원여성경영인협회 철원지회장이·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2 14 ()

16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14일 오전 11시 한탄광호호텔에서 열리는 여성경영인연합회장이 취임식에 참석한다.

2024 02 14 ()

江原日報

01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희망찬 김진년 새해!
도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325회 임시회
2. 14. ~ 23. (10일간)

- 신년연설(도지사, 교육감)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당면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사찰 등

새로운 공동 행복의 미래 함께 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024 02 14 ()
01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희망찬갑진년 새해!
도민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제325회 임시회
2. 14. ~ 23. (10일간)

- 신년연설(도지사, 교육감)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당면안건 심의·처리 및 현저시찰 등

새로운 경연, 행복한 미래, 함께 아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024 02 14 ()
07

2024년, 갑진년 새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02 14 ()

강원도민일보

01

강원도 학생 수 역대 최저...해답이 없어서 문제

올해 초중고 13만9888명 집계
신입생 0'명 초교 22곳 매년 증가
폐교 논의·학생 감소 인정 분위기
작은학교 교육활동 지장 우려

강원도내 초·중·고 학생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인 13만9888명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교육당국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강원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13만9888명으로 강원교육통계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지난 2000년 25만2800명이던 강원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13년 19만4543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줄어들기 시작한 학령인구는 급감, 2021년에는 14만8634명으로 집계되며 15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후로도 학생 수는 계속 줄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4만명대가 붕괴한 13만9888명을 기록했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해서는 11만2913명 감소했다.

학생이 줄면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꾸준히 생기고 있다. 지난 2020년 20곳이던 강원도내 신입생 0명 초교는 이듬해 16곳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는 18곳이 신입생을 구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강원도내 20개 초교가 입학식을 열지 못했다.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22개 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 2개 학교가 신입생 0명을 기록했다. 올해 신입생 0명 학교가 없는 고등학교도 최근 3년간 꾸준히 1~2개 학교가 신입생을 구하지 못했다. 신입생을 구하지 못한 학교들은 학



교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 내 학생이 없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춘천 A초 관계자는 "마을에 아이들 이 없다. 유치원생도 없어 신입생이 계속 없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어디서 데려올 수도 없는 실정이니 1학기 중에 학부모, 동문회 등과 폐교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평창 B초 관계자도 "마을 분위기 자체가 연로하다. 학생감소에 대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은 재학생들이 잘 교육받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 밝혔다. 철원 C초 관계자는 "올해 학급이 하나 줄었다. 1학년은 0명이고 2학년은 1명이다. 지금보다도 2~3년 후가 더 걱정"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향후 학생 수 추이, 교실 여건, 교원정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민엽·양유근

2024 02 14 ()

강원도민일보

강원 고향기부금 52억원 모금 전국 5위

01
내달 기금운용위서 계획 확정
공동체 활성화·치아교정 등 투입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모금액이 52억원 규모로 집계된 가운데 도와 각 지자체가 기부금 활용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청과 도내 18개 시·군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설치·운영하고 요건을 갖춘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기금 용처는 △사회적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으로 정했다.

강원도청과 도내 18개 시·군은 행정안전부 시스템 기준, 지난해 1년간 52억 9403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청은 3

억 3006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시·군별로는 △속초시 4억 4230만원 △강릉시 4억 1251만원 △평창군 4억 588만원 △춘천시 3억 9060만원 등 순서로 모금액이 많았다.

강원도청은 다음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금 활용 계획을 확정한다. 도 관계자는 “전국 광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기부금이 강원도청에 모금됐다”며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지, 기금을 지속적 집행할지 여부를 위원

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기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강릉시는 이번 달 기금 사업을 확정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청소년과 아동, 노인을 위한 2~3건의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이번 달 확정해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의료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사업’에 투입한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 02 14 ()

09

도교육청, 춘천고 앞 오피스텔 신축 불승인

학생 통학안전 · 교통상충 등 우려
교육환경 사수·건립 반대 총궐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춘천고 앞 28층 규모 오피스텔 건축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오후 ‘2024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고 춘천고 앞 오피스텔 건립 건에 대해 ‘불승인’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밝힌 불승인 사유는 △학생 통학안전 우려 △교통상충에 대한 대책 보완 △오피스텔 주차장 진출입구와 학생 통학 동선 충돌 우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로 활용될 우려 등이다.

춘천고 앞 오피스텔은 2020년 25

층 규모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지역사회가 완강히 반대, 결국 같은 해 5월 재검토 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던 오피스텔 신축 사업은 지난해 시행사 측이 2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다시금 지역 사회 내 논란을 낳았다.

학교 측의 반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춘천고 총동문회 등이 주축이 돼 이날 오후 교육청 앞에서는 춘천고 앞 오피스텔 건축에 반대하는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학교 측은 강원도 중등교장단 180명, 춘천시 고등학교 교감단 10명 등 학생, 학부모, 교사



13일 강원도교육청 정문에서 춘천고 재학생, 학부모, 동문 등이 교육환경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춘천고 앞 오피스텔 건설 재추진을 반대했다. 유희태

1800여 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춘천고 측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다. 이경주 춘천고 교장은 “건설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을 승인한다면 우리 후대는 앞으로 100년 동안 교통 속에서 살아야 할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반대가 심해 어느 정도 불승인에 예측했다”면서 “우리는 항상 학교 측과 타협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상생하는 쪽으로 소통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민엽

江原日報

춘천고 앞 고층 오피스텔 건립 불승인

도교육청 환경보호위원회 학생 안전 등 이유로 재학생 등 건립 반대 촉구 1,800명 참여 탄원서 제출

【춘천】춘천고 앞 고층 오피스텔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열린 '2024 제1회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 기준 발인 결과 춘천고 정문 앞 오피스텔 건립이 불승인됐다고 밝혔다.

불승인 이유로는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량 조사 미흡 △공인력 있는 기관의 교통영향평가 필요 △교통량이 많은



◇춘천고 재학생과 동문, 학부모들이 13일 열린 제1차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앞두고 강원자치도교육청 앞에 모여 '교육환경 사수 총결기대회'를 열었다. 신세희기자

지역으로서 교통상충에 대한 대책 보완 필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로 활용 우려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재추진된 고층 오피스텔 건립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이날 교육환경평가에 앞서

춘천고 학생, 학부모, 동문 등 수백명은 도교육청 앞에서 교육환경 사수 총결기대회를 열고 오피스텔 건립 취소를 촉구했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800여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춘천고 앞 오피스텔 사업은 2020년에도 추진됐다가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시 학교 정문 7m 앞에 고층건물이 신축되며 학생 안전, 학습권 침해, 교통 혼잡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멈춰 있던 사업은 지난해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절차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경주 춘천고 교장은 “불승인은 춘천고 교육가족들의 승리이며 당연하고 감사한 결과”라며 “주후 시행사의 사업 재추진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희기자

江原日報

양미리 너마저... 동해서 자취 감춰



겨울철 동해안 대표 어종인 도루묵이 자취를 감춘 데 이어 양미리와 도치까지 사라지며 연안자망 어업계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

13일 도글로벌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루묵 어획량은 3톤으로 최근 3년 평균(107톤)의 2.8% 수준에 그쳤다. 양미리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507톤)의 절반 수준인 261톤을 잡는데 그쳤다. 도치는 사실상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수준이다.

수산 전문가들은 동해안 겨울철

도루묵 이어 어획량 절반 '뚝' 효자 노릇 도치까지 사라져 연안자망 생계 어민들 타격 수온변화·해조류 감소 원인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수온 변화, 해조류 감소에 따른 산란공간 부족, 무분별한 통발 설치 및 남획 등을 꼽고 있다. 더욱이 2010년대 자원 회복 노력으로 어획량이 크게 늘며 모범 사례로 꼽혔던 도루묵이 다시 사라

지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아쉬움도 커지고 있다.

연안자망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민도 울상이다. 동해안의 60~70% 어민들이 떨지 않은 바다에서 그물로 수산물을 잡는 연안자망 어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어획량 감소가 직격타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한 두름(20마리)당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효자 노릇을 했던 도치 역시 어획량이 급감, 겨울철 특수도 누리지 못하는 실

정이다. 이종남 도연안유자망연합회장은 “어획량 감소뿐만 아니라 일본 오염수 방류 논란 이후 전반적인 가격도 낮아져 동해안 어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도루묵 산란장 조성 및 종자 방류 등 점진적인 자원 회복 노력을 다시 시작했다”며 “연안 수산생물의 서식 환경 개선 및 어족 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2024 02 14 ()

江原日報

강원 초·중학교 24곳 올해 신입생 '0명'

01

/ 연중기획 '지역소멸 위기 - 어떻게 극복하나' /

강원특별자치도의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13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초·중·고 학급편성'에 따르면 올해 도내 24개 학교가 신입생 한 명이 없어 입학식을 못한 채 새 학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수 급감으로 사라지는 학급 수도 92개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도내 초등학교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 수와 학급 수의 동반하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6만9,388명에서 올해 6만6,049명으로 3,339명(전체 3,181명)이나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신입생이 없는 도내 학교의 92%(22곳)가 초등학교일 정도다.

신입생이 1명인 초등학교도 19곳에 이른다. 초등학교에서만 줄어드는 학급 수가 91개에 달한다. 그나마 중학교는 학급 수가 소폭 증가하면서 전체 학급 수 감소가 100개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별로는 춘천에서 가장 많은 840명의 초교생이 줄었고, 이어 원주(757명), 강릉(421명), 속초·양양(290명), 동

해(285명) 등의 순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인제는 도내 유일하게 초교생이 54명 증가했다. 이처럼 초교생 수가 감소하며 도내 시(동)지역 초교 학급편성 기준은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24명으로 1명 감축됐다.

도내 중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만 6,873명에서 올해 3만 7,007명으로 134명 증가했다. 춘천(117명 증가),

학령인구 감소세 갈수록 심각
초등학생 1년새 3,339명 줄어
중학교 2곳도 입학생 아예 없어

원주(78명 증가) 등 10개 시·군은 중학생 수가 늘고, 평창(38명 감소), 강릉(24명 감소) 등 7개 시·군은 줄었다. 특히 평창 미탄중과 정선 화동중은 올해 신입생 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도내 신입생이 0명인 중학

교가 한 곳도 없었다. 전교생 10명 이하인 중학교도 가곡중 등 9곳으로 집계됐다. 이병화 화동중 교장은 "배정됐던 신입생이 3년 내내 혼자 공부할 것이 두려워 인근 중학교로 재배정을 요청했다"며 "학부모께서 다른 학생을 구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는데 학교 자체 힘으로는 불가능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강동휘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4 02 14 ()

02

도내 초·중 24곳 신입생 0명

-1면에서 계속

고등학생 수는 올해 3만6,832명으로 지난해(3만6,808명)보다 24명 늘었다. 가곡고는 전교생 5명으로 도내 고교 중 가장 학생 수가 적었다. 4개 고교는 정원 미달 및 신입생 미충원으로 학급 수 감소를 겪게 됐다.

이 같은 학생 수 증감에 따라 올해 도내 학급 수는 전년 대비 초등학교 91학급, 고등학교 10학급이 각각 줄고, 중학교에서 9학급 늘어 총 92개 학급 감소를 기록했다.

김성호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의 정원 감축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며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적절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원주 농업계 숙원 '미곡처리장 통합' 본격화

조합공동법인 출자안 최종 의결 내달 인가 신청 6~7월 결정 원주쌀 품질 일원화 경쟁력 강화

속보=원주 농업계의 장기 숙원인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본지 12월 26일 11면)이 올해 본격화된다. 원주 6개 지역농협은 최근 조합별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원주시, 농협간 협의를 통해 도출한 '원주시 농

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사업 참여와 출자 안'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은 통합 RPC 설립을 위해 현물과 현금으로 나눠 출자에 나서게 된다. 현재 운영중인 미곡처리장 등을 현물 출자하고 농협별로 최저 4.9%에서 최고 43.1%의 비율로 현금출자한다. 현금출자 규모는 총 200억원이다. 농협 시지부는 지역농협별 총회의 결사향을 취합해 오는 3월 중 RPC 통

합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법인 설립,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신청을 마칠 계획이다. 인가 여부는 오는 6~7월 쯤 결정된다. RPC 통합은 원주쌀 품질 유지와 지역 쌀 산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역농협마다 의견 차이로 미뤄지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RPC 미통합 지역에 대해 정부의 시설 지원을 중단토록 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RPC가 통합되면, 올해 수매하는 쌀부터 판매처를 지역농협에서 법인 명으로 일원화해 판매하고 지역농협마다 달랐던 수매가와 쌀 등급 기준, 가격 등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전산망도 구축된다. 농협 시지부 관계자는 "원주에서 생산된 쌀은 지역농협에서 법인으로 이관,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수매, 판매되며 한층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

강원도민일보

정선 화암면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신축 속도

이달부터 실시설계 용역 진행 36억원 투입 숙박시설 등 조성 현 건물 철거 후 2026년 완공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신축 조감도

정선군은 예술장작활동의 거점이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되는 화암면 그림바위예술발전소를 신축한다. 그림바위예술발전소는 12년간 방치된 한전 화암변전소 건물을 지난 2018년 리모델링, 지역내 예술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 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거점으로 활용해 왔지만 노후된 건물 및 시설과 공간 미흡으로 지역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36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예술발전소와 숙박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예술발전소 1층에는 주민복지 공간, 전시실, 교육실, 휴게공간으로, 2층은 창작실, 연습실, 동아리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숙박시설은 1층과 2층 모두 공유 숙박 형태의 2인실 숙소와 공유 주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예술가들의 체류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공공건축 사전협의 및 심의,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현 건물을 철거한 후 공사에 착수,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신축

을 통해 예술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시, 공연,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관광명소 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한 체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성 군 문화체육과장은 "화암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그림바위 예술발전소 신축과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정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江原日報

1·2심 엇갈린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대법원 간다

속보=2019년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가 벌인 구상권 소송 사건(본보 1월 30일자 5면 보도)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정부와 지자체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정부 등(강원자치도·속초시·고성군 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맞소송)인 비용상환청구 소송의 항소

정부·지자체 패소 불복 상고 "항소심 판결 법리 오해" '구상권 조항' 개정 불가피 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1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원자치도는 "재난 지원금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특히 이번 소송은

2017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구상권 청구 근거 조항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소송 사례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재난지원금(하자금 면제, 자금 용자 등)에 대해서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한전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400억원을 한전이 책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한전의 배상 책임을 60억원으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의무 등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9일 한전 전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산불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언제든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원인 제공자로서는 신속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고, 구상권 행사를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일한 조항(재난안전법 제66조 6항)을 두고 1, 2심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 개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2 14 ()

13

삼척시립도계노인요양원 하반기 개원 '속도'

130억원 투입 4~5월 완공 목표
내달 민간위탁 공모 절차 돌입
타지역 장거리 이동 불편 해소

강원 남부권 대표 폐광지인 삼척시 도계읍에 조성중인 시립노인요양원이 올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내달중 민간위탁 공모 절차를 밟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삼척시는 3월 4~23일 20일간 시립도계요양원 민간위탁 공모 절차를 밟

는다. 삼척시립도계노인요양원은 오는 4~5월 완공을 목표로 도계읍 전두리 48의13번지 일원 4200㎡ 부지에 국비 포함 모두 130억원이 투입돼 지상 5층, 연면적 3470여㎡ 규모로 건립된다.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다. 앞으로 공정은 도배와 장판 설치 등 내부인테리어 정도만 남았다.

시는 3월 중으로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한 뒤 상호 협의를 통해 필요 시설 등을 점검, 오는 6월 이후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곳에는 치매 전담형을 포함해

모두 100명 정도가 머물게 되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게 된다. 특히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질환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다른 지역 노인요양원을 이용해야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앞서 2017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와 도시관리계획, 일부 국유재산 취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년여 만인 2021년 11월 착공했다.

삼척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

율은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도계지역의 노인인구는 삼척시 전체 노인인구의 16~1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계지역에 시립노인요양원이 설립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돌봄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원거리 이동 등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폐광지역인 도계지역에 들어서는 시립노인요양원을 통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안정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江原日報

2024 02 14 ()

14

태백요양병원 내일 문연다

태백병원 4층 병상 55개 운영 의료인력 40여명 배치
근로복지공단 협의 병상규모·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

【태백】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태백시에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태백 요양병원이 15일 개원한다.

태백 요양병원은 지역 최초의 요양병원으로 종합병원인 태백병원 4층에 55개 병상으로 운영되며 의사 3명, 간호사 11명, 요양보호사 등 40여명의 의료인력이 배치된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진폐, 고령·만성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태백시민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 요양병원 개설은 민선 8기 이상호 태백시장 공약사항이다. 의료취약지구 없는 건강 도시를 구현하고, 노령인구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자 근로복지공단과 다각적으로 상호 협력을 지속해 개원하게 됐다.

시는 시민이 더 많은 공공보건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요양병원의 병상 규모와 보호자 없는 병

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웅렬 태백 요양병원 병원장은 "요양병원이 노인성 중증 질환자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전체 인구 3만8,720명 중 노인이 1만1,213명으로 고령화 비율이 약 29%인 초고령 도시다. 김광희기자

江原日報

영월 어르신 ‘보건소·치매·돌봄’ 원스톱 서비스

군 맞춤형 통합체계 구축... 노인 살기좋은 도시 박차
빨래방 일자리·안부 효우유 서비스 확대 복지 강화

집안 정리 등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홀몸 노인 등에게 우유를 배달하며 안부를 묻는 ‘어르신 안부 지킴이 효(孝)우유 서비스’는 기존 30가구에서 50가구로 확대한다.

번 전수 조사를 통해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8월까지 외곽 지역 경로당 8개소를 대상으로 주 2회씩 치매 예방 교실도 운영한다.

상황”이라며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영월형 어르신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월】영월군이 영월형 어르신 맞춤형 통합 돌봄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하는 등 노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올해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돌봄 수행 기관 등을 활용해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

내달부터는 영월읍과 주천면 기본 좋은 빨래방의 일자리 참여자를 개소 당 15명씩 증원해 이불 빨래 세탁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 지역 내 노인의 현황과 생활 실태, 복지 용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폐지 수집 노인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이

최명서 군수는 “고령화 시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요원석기자

江原日報



◇강원대 총장 후보 제2차 공개토론회가 13일 강원대 삼척·도계캠퍼스에서 후보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대 삼척·도계캠퍼스 활성화 방안 논의

총장 후보 2차 공개토론회

강원대 총장 후보 6명은 13일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국제회의실에서 제2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삼척·도계캠퍼스 활성화 방안 및 글로벌대학 캠퍼스총장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발언순으로 밝혔다.

기호4번 유기억 후보는 “삼척·도계캠퍼스 발전을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거점 체제 구축, 스포츠 분야 특성화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기호5번 김광호 후보는 “삼척캠퍼스는 1도1국립대 비전에서 영동지역 중심으로서 지역 비전을 견인하는 선도적 캠퍼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호3번 최성웅 후보는 “구성원의 의견이 100% 반영된

캠퍼스 부총장을 운영하고 기본예산 확보로 지역캠퍼스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호6번 홍성구 후보는 “정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삼척시와 협력한 캠퍼스 특성화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지역 일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기호2번 정재연 후보는 “삼척캠퍼스가 자생력을 갖추도록 모든 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도계지역을 보건과학특성화대학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기호1번 주진형 후보는 “삼척지역 강원대병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 공학대학은 에너지, 빅데이터, 환경분야 등으로 특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2024 02 14 ()

江原日報

16

‘양구서 살아보기’ 사흘 만에 마감

군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30명 선착순 모집 호응 커 참가자들 2~8박 필수 체험... 숙박비·식비 등 지원

【양구】양구군이 선을 보인 지역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인 ‘양구 안에서’가 모집 시작 3일 만에 마감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타 지역 주민들이 일정 기간 양구에서 머물며 숙박과 체험 등의 활동을 하며 양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양구 안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 결과 3일 만에 목표로 했던 30명이 마감됐다고 13일 밝혔다.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양구 안에서’ 참가자들에게는 1인당 하루 숙박비 5만원, 식비 1만원, 체험비 1회당 2만원이 지원된다. 또 웰컴키트, 여행

자 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2월부터 3월7일까지 양구에서 2~8박을 머물며 필수 체험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개인 SNS에 참여 후기를 공유하게 된다.

필수 체험 활동은 전통한과와 주얼리 만들기, 콤포차 만들기, 국토정중앙전문대 전시 관람, 농촌체험관광협의회 맞춤형 프로그램 등 양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개인별 체류 기간에 따라 1~4회

씩 체험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필수 체험 활동을 제외한 여행 일정, 숙박 장소, 관광 장소 등 제한 없이 참여자들의 취향과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종우 인구정책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양구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색 체험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와 귀농귀촌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래석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2 14 ()

17

양양 인구 감소세 지속...새해들어 29명 줄어

1월말 등록인구 총 2만7681명 사망자 수 대비 신생아 수 적어 농촌유학생 유입 인구 증가 기대

새해들어 양양지역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양양군이 지난 1월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양양군 6개 읍·면 주민등록 인구는 총 2만 7681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같은 인구수는 지난 연말 2만 7710명에 비해 29명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양양군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에 비해 156명이 줄어들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이후 감소하던 양양군 인구는 16년 만인 지난 2018년 증가세로 돌아선 후 3년 연속 증가했었으나 2021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인구변화 추이를 읍·면별로 보면 한동안 인구증가세를 이끌었던 양양읍에서 26명이 줄어 양양군 전체 감소수치와 비슷했고, 강현면 14명에 이어 손양·현남면도 각 2명, 현북면 1명이 감소했다. 반면 그동안 인구가 꾸준히 감소했던 서면이 16명이 늘어 늘기를 끌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양양지역에서는 30명이 사망하고 신생아 출산은 7명에 그쳐 최근 인구감소의 주요 원

인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읍·면별 인구변화는 읍내 거주하는 주민 상당수가 주민등록지를 서면으로 옮겼기 때문으로 확인된다”며 “3월 개학과 함께 한남초교에 29명의 농촌유학생 입학이 예정돼 있어 이번달 인구가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훈 choihoo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2 14 ()

/ 19

의대 지역인재 확대 구체화 과제

-정부 60%상향 계획, 수능 등급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증가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지역 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반영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의료계의 반대 의견과 대안을 수렴해 안정적인 의료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인재 전형 비율도 60%로 늘리기로 해 강원 의료인 확충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끄니다. 그러나 도내 입시생들의 수능 최저 등급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강원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지역인재를 육성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현재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시 전문 학원에서 분석한 '2025학년도 대학별 입시 기준'을 보면, 지역 26개 의대 중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26개 지방권 대학은 2025학년도 수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평균 63.8%를 뽑을 계획으로, 호남권이 7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강원권은 38.1%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뽑지 않는 곳은 충청권과 강원권 등 2곳뿐이어서 개선이 요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강원도내 의대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 조치에 맞춰 도내 의대 정원은 현재 267명에서 43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비율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원대와 도교육청은 이르면 내년부터 의대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수능 최저 등급 확보입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 충족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최근 강원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인재 양성 및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대가 원하는 과목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기본 학습 역량을 높이기로 해결과가 기대됩니다.

강원도의 의료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 상향을 포함, 다각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 시스템 복구 정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단기 대책과 함께,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높일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2 14 ()

/ 19

자치단체 ‘공모사업’ 경쟁, 치밀한 전략이 중요

자치단체의 각종 공모사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비 2,000억원 지원이 걸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공모에 전국 7개 자치단체가 도전장을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 부지 선정 공모 접수를 지난 8일 마감한 결과 강원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철원군을 비롯해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치 홍보를 활발히 펼쳐 온 지자체와 더불어 공항 접근성, 서울과의 교통 편의를 앞세운 인천 서구, 김포시가 강력한 경쟁자로 합류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1차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다.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으

로 9일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1차 공모에 응모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주도로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기관 등이 협력해 교육혁신 청사진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강원FC 축구 전용 구장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의 불씨도 K리그 개막을 앞두고 되살아나고 있다. 2022년 강원자치도가 축구 전용 구장 건립 추진을 백지화한 후 움직임이 멈춰 선 상태지만 강원FC 홈경기 순회 개최 도시인 춘천시와 강릉시가 최근 경기장 건설 구상을 다시 꺼내 들면서다.

특히 강릉시는 “강원FC뿐만 아니라 강릉시민축구

단 등 포괄적인 활용을 위해 축구 전용 구장 건립을 구상하고 있고 향후 국·도비 공모에도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자치단체가 정부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은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선은 지역 자체가 자생력을 갖게 되고 크게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 전국 의 시·도와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취지나 동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치단체가 계획하

고 있는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는 나후 후 도의 낙인을 지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일조한다. 문제는 도내 자치단체들의 지나친 경쟁이 전열을 흐트러지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타 시·도의 자치단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치밀한 분석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공모사업 신청이 능사가 아니다. 치밀한 전략 아래 일정 부분 조율이 있어야 한다. 도내 자치단체 들끼리 자중지란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가 자치단체가 벌이는 사업에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되지만, 일정 부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춘천·원주·철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공모

춘천·강릉, 강원FC 축구 전용 구장 구축 나서

일정 부분 조율로 자중지란 막아야 할 때

江原日報

2024 02 14 ()

/ 19

또 오르는 유가, 물가 상승률 2%대 유지 가능하나

기름값이 다시 오르면서 6개월 만에 2%대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또 3%대로 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4~8일) 도내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6.54원 인상된 1,610.10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값이 1,600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이후 6주 만이다. 같은 기간 도내 경유 가격은 1주일 전보다 13.06원 상승한 1,518.86원을 나타냈다. 경유 가격은 1월 넷째 주(1,498.7원) 1,40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1주일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뒤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업계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기름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안한 기름값이 가까스로 안정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친이란 민병대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지자 미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진 중동 상황이다. 덩달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유가 불안의 파고는 더 심해지고 있다. 세계 해운 교역량의 12%,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담당하는 수에즈운하 불안정으로 선박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물류비가 천정부지로 급등했다.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의 69%는 중동에서 들어온다. 따라서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재연장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1ℓ당 인하는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하 조치 종료 시 서민 부담이 늘어나고 간신히 2%대에 진입한 물가의 상승세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

중동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오일쇼크’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관련 부처와 기업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마련해 공급망 위기를 타개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물류비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질 것인 만큼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물가 통계의 비교 대상인 지난해 상반기에는 3~5%대의 고물가가 유지됐다. 2%대 물가의 조속하고 확실한 안정에 느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는 회복세를 예단하기 어렵다. 국민이 더 체감하는 것은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보다 단기 가격 변동성이 큰 부분의 물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